

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

【지역이슈분석 2012 - 13】

2012. 5. 25.

미얀마의 개혁개방 정책과 협력확대 방안

목 차

I. 머리말	1
II. 최근의 개혁개방정책	2
III. 주요국의 대응과 향후 전망	5
IV. 한-미얀마 협력 확대방안	8



■ 미얀마는 1988년 쿠데타 이후 인권탄압으로 서방세계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아 폐쇄적인 체재를 유지하였으나, 2011년 4월 출범한 민선정부가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여기서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대규모 개발 수요 등으로 아시아의 마지막 황금시장으로 여겨지는 미얀마의 최근 개혁개방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미얀마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한 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I. 머리말

□ 민주화 로드맵에 의한 민선정부 출범

- 미얀마는 1988년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극심한 탄압, 부정부패 등으로 사회가 크게 불안하였음. 특히 1990년 5월 총선에서 아웅산수찌(Aung San Suu Kyi)가 이끄는 민주민족동맹(NLD)이 승리하였으나 이를 군부가 무효화하면서 서방 세계의 경제제재가 본격화 됨.
- 미얀마 군부는 인권탄압 등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 속에 2003년 7단계 민주화 로드맵¹⁾을 발표하고, 동 로드맵에 따라 2010년 11월 군부주도의 총선이 실시되고 2011년 4월 민선 정부가 출범하였음.

□ 신정부의 정치적 자유화와 개방 추진

- 민선 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떼인세인(Thein Sein) 대통령은 취임 이후 500여명 규모의 정치범 석방, 언론에 대한 통제 완화, 외국인투자 제도 개선, 단일 환율제도 도입 등의 일련의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면서 세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1) 7단계 로드맵은 ① 1996년 이후 중단된 국민회의 재소집, ② 민주화 조치 시행, ③ 국민회의의 기본원칙에 의한 헌법 초안 마련, ④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제정, ⑤ 신 헌법에 따른 총선 실시, ⑥ 의회 구성, ⑦ 의회에서 선출한 새 대통령에 의한 평화로운 민주국가 건설 등임.



- 신정부는 2010년 가택연금을 해제한 아웅산수찌 여사와의 회담을 개최하고, 야당인 NLD의 정당 등록을 허용하였으며, 2012년 1월에는 지난 60여년간 반정부 독립 투쟁을 벌인 카렌민족연합(Karen National Union)과 정전협정에 서명하는 등 파격적인 개방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당초 형식상의 민선정부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음.
- 신정부의 기반이 되는 2008년 개정헌법은 의회 의석의 25%를 군부에 배정하고 있고 군부측 정당이 의회 다수당이며, 정부 주요 인사가 전직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형식상의 민선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II. 최근의 개혁개방정책

1. 변동환율제 도입

□ 경제발전의 대표적 걸림돌인 고정환율제 폐지

- 미얀마는 1977년 이후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해 왔으나, 실제로는 정부의 공식환율, 정부공인환율, 시장환율 등 복잡한 환율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경제발전과 외국인투자 유입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함.
- 공식환율은 1977년 IMF의 특별인출권(SDR) 환율인 달러당 6.4차트로 고정된 이후 조정되지 않아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공인환율은 수입품 가격 및 관세 산정에 사용되었음.
- 시장환율은 미얀마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환율로 2009년초에는 달러당 1,200차트까지 상승하여 공식환율과 약 200배의 괴리를 보이기도 했으나, 개방정책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증대되면서 하락세를 보여 지난 5월 17일에는 달러당 833차트를 기록하고 있음.
- 미얀마 신정부는 금융부문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2012년 4월 1일 기존의 고정환율제도를 폐지하고 관리변동환율제도²⁾를 도입하여 금융시장 발전과 지하경제 축소를 위한 발판을 마련함.

2) 미얀마중앙은행(Central Bank of Myanmar: CBM)이 은행간 외화 경매시장에서 결정된 환율에 일정 범위의 환율변동폭을 적용하여 기준환율(reference rate)을 고시하는 제도임.



- 신정부는 2011년 10월 6개 민간은행³⁾에 대해 달러계좌 개설과 외화 환전 기능을 부여하여 단일 환율제도 도입을 준비하여 왔음.

□ 관리변동환율제 도입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여건 개선

- 미얀마의 복잡한 환율제도는 과실송금 제한과 함께 교역 및 외국인직접투자의 가장 큰 제약요인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대외거래와 외국인직접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환율제도의 개혁은 미얀마 경제개혁 조치의 가시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들의 미얀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다중환율제도로 인한 부정부패 요인⁴⁾도 축소시킬 것으로 기대됨.

2.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정책 추진

□ 경제특구(SEZ)법 제정

- 미얀마에는 1988년에 제정된 외국인투자법이 있으나 서방세계의 경제제재로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미얀마 신정부는 본격적인 경제자유화 법령의 일환으로 2011년 1월 경제특구(SEZ)법을 공포하였음.
- 경제특구법은 SEZ내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⁵⁾, 투자자의 권리⁶⁾, 토지 이용⁷⁾, 금융관련 업무⁸⁾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경제특구는 더웨이(Dawei, 남부지역 심해항구 개발지역), 띠라와(Thilawa, 양공 인근 항구), 무세(Muse, 중국국경지대), 마위디(Myawaddy, 태국국경지역), 짜옥퓨(Kyauk Phyu, 남서해 천연가스 시추 지역) 등 총 5개 지역이 우선 선정되어 개발될 예정임.

3) 외환기능이 신설된 6개 민간은행은 Myawaddy Bank, Cooperative Bank, Kanbawza Bank, Innwa Bank, Myanmar Oriental Bank, Myanmar Industrial Development Bank 등임.

4) 그동안 미얀마 정부기관이나 국영기업은 에너지 및 천연자원 등의 수출시 달러 거래대금을 공식환율로 환산하여 차트화로 입금하여 사실상 100배가 넘는 차액을 얻어왔음.

5) SEZ에 대한 투자자는 사업 개시후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며 이후 5년간 추가 면세혜택도 받을 수 있음.

6) SEZ내 투자 사업은 허가기간 중 국유화되지 않음.

7) SEZ내 토지는 30~75년간 임대 가능하며, 임대기간은 투자 규모와 종류에 따라 결정됨.

8) SEZ내 투자기업은 외화 계좌를 국내 및 해외 은행에 개설할 수 있으며, 외화거래가 가능함.



- 이 중 더웨이(또는 따보이 Tavoy)⁹⁾는 미얀마 남부 떠닝다이주의 주도(州都)이자 항구 도시로서 과거부터 해상자원이 풍부하고 무역항으로서 입지가 유리한 지역으로 심해항구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 외국인투자법 개정

- 미얀마 신정부는 개혁개방 조치의 핵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2012년 3월 외국인투자법 개정 추진을 발표하였으며, 지난 5월 초에는 떼인세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¹⁰⁾.
- 주요 개정 내용은 개인이 소유한 토지의 임대 허용, 사업 개시후 5년간 법인세 면제, 100% 단독 투자법인 설립 허용 등임.

□ 개방정책 실시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급증

- 주요 투자국은 중국, 태국, 홍콩, 한국 등으로 투자 부문은 전력, 석유가스, 광업 등 에너지 자원 개발이 대부분이고 제조업은 미미함.
- 2012년 3월말 기준, 외국인직접투자 승인액 누계는 407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2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였음.

<표 1> 국별, 산업별 대미얀마 투자 현황

국가	투자액	비중	산업	투자액	비중
중 국	13,949	34%	전 력	18,874	46%
태 국	9,568	24%	석유/가스	14,063	35%
홍 콩	6,308	15%	광 업	2,814	7%
한 국	2,741	7%	제 조 업	1,761	4%
기 타	8,133	20%	기 타	3,187	8%
소 계	40,699	100%	소 계	40,699	100%

주 : 2012년 3월, 승인액 누계 기준, 백만달러
 자료: 미얀마 투자기업청(DICA)

9) 2010년 11월 10일 태국 이탈타이개발사(ITD)가 독점개발을 허가받은 동 프로젝트는 총 투자 금액 580억 달러, 총 부지 10만 에이커 규모임. 이 중 제1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은 2012~22년 기간 중 지역내 심해 항구 신축, 태국 깐짜나부리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 기타 대륙부동남아국가(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를 연결하는 250km의 8차선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약 86억 달러가 소요될 예정임.

10) Financial Times, Myanmar finalises new investment law, May 8, 2012.



Ⅲ. 주요국의 대응과 향후 전망

1. 주요 선진국의 대응 현황

□ 미얀마 경제제재의 핵심국가인 미국

- 미국은 미얀마의 인권탄압에 대한 조치로서 여러 차례의 경제제재¹¹⁾를 시행하여 왔으며, 그 중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는 2003년 7월의 버마자유민주화법(Burmese Freedom and Democracy Act) 제정임.
 - 동 법의 주요 내용은 미국 기업의 대미얀마 신규 투자 금지, 고위 인사 비자발급 중단, 미얀마 정부자산 동결, 원조 중단, 국제금융기구의 대미얀마 지원시 반대, 미얀마산 제품의 수입 금지 등임.
- 그동안 미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강경 입장이었으나,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서서는 중국에 대한 경제 정책에 중점을 두면서 대화와 제재라는 이중 노선을 병행하고 견지해 오고 있음.¹²⁾
 - 미얀마 신정부가 2011년 10월 ~ 2012년 3월까지 약 500여명의 정치범 석방,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법률 제정, 노조결성과 파업을 허용하는 노동제도 도입 등의 파격적인 개혁조치들을 시행하면서 미국의 제재 완화 가능성이 고조됨.
- 2012년 4월 1일의 보궐선거에서 총 45석 중 43석을 야당인 NLD당이 획득하고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수찌가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등 미얀마 민주화가 가시적인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미국은 선거직후 미국 원조청(USAID)의 사무소를 개소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미얀마에 대한 세계은행, IMF, ADB 등 국제금융기구의 미얀마 지원에 대한 반대를 철회함으로써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5월 17일에는 데릭 미첼(Derek Mitchell) 미얀마 특사를 주미얀마 미국대사로 공식 지명하여 1990년 미 대사 소환이후

11) 미국의 대미얀마 제재 관련 법령은 ① Section 138 of Custom and Trade Act 1990, ② Section 307 of the 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 ③ Section 570 of the Foreign Operation, ④ Export Financing, and Related Programs Appropriations Act 1997, ⑤The Burmese Freedom and Democracy Act of 2003, 2008 Jade Act 등 5개임.

12) 이재현, 미얀마 정치 자유화의 국내외적 의미와 향후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2012. 2.



공식 외교채널을 복원하였음.

- 그러나 미국의 대미얀마 제재 조치들은 미 의회입법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해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미얀마 경제제재 완화에 적극적인 EU

- EU는 최근 미얀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개혁개방정책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무기수출금지과 일반특혜관세 금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재 조치를 1년간 유예함.¹³⁾
 - EU의 제재 완화 조치는 과거 식민지배국가였던 영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2년 1월 EU는 미얀마 주요 정부인사에 대한 비자발급 금지 조치 해제, 1억 5,000만 유로 규모의 원조자금 지원, 원조사무소 설치 등을 발표함.

□ 대규모 차관 제공을 추진하는 일본

- 1988년 미얀마의 쿠데타 이전까지 대미얀마 최대 원조 공여국이었던 일본은 미얀마의 개혁개방 조치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2011년 12월에 무상 원조 및 차관 공여를 재개하기로 발표함.
- 특히 2012년 4월 21일 도쿄에서 개최된 일본-메콩강유역 5개국(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정상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미얀마에 대해 3,000억 엔의 부채¹⁴⁾를 탕감하고 2013~15년 기간중 6,000억 엔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발표함.
 - 또한 일본 정부는 메콩강 지역 인프라개발을 위해 총 6,000억 엔의 ODA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메콩강 유역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2. 향후 전망

□ 개방정책의 효과로 인한 경제 성장세 지속

13) 2012년 4월 23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결정됨.

14) 미얀마의 대일본 부채 총액은 5,020억 엔에 이르고 있음.



- 미얀마는 오랜 기간의 경제 제재로 국내 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그동안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거의 유일한 경제성장 동력이었음.

<표 2> 미얀마의 주요 경제 지표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f
경 제 성 장 률 (%)	4.7	4.3	4.5	4.8	5.0
재 정 수 지 / G D P (%)	-3.4	-4.4	-4.7	-5.0	-4.6
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률 (%)	26.8	1.5	7.8	5.2	5.7

자료: 지식경제부, 제5차 한-미얀마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2011.12.7

- 최근의 개혁개방정책으로 석유 가스와 전력 등의 에너지 부문과 낙후된 인프라 개발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는 수도 네피도(Naypyidaw) 정비사업 및 국방비 등 정부 지출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취약한 세수 기반 및 지하경제의 활성화로 정부 수입은 소폭 증가하고 있어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소비자물가는 외국인투자 유입액 급증으로 인한 차트(kyat)화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2011년 말의 전기료 40% 인상, 2012년 초의 휘발류 가격 30% 인상, 원자재 수입수요 증대 등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경제 개방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변화는 크지 않을 듯

- 2011년 4월 신정부 출범 이후의 파격적인 개혁개방정책에도 불구하고 개방의 정도는 기존의 탄쉐(Than Shwe) 장군을 중심으로 하는 군부 세력의 기득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 미얀마 군부 세력으로서 본격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그동안의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정 범위내의 민주화와 경제개혁 방안을 용인하였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개혁개방의 정도는 미국의 경제 제재가 완전히 해제될 것으로 미얀마 군부가 기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미얀마 군부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은 아직 크지 않아 당분간은 정치적 안정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으로 예정된 차기 총선 결과가 향후 정치적 안정 유지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임.

IV. 한-미얀마 협력확대 방안

1. 미얀마의 전략적 가치

□ 풍부한 에너지 및 광물 자원 보유

- 천연가스와 원유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6대 전략 광물¹⁵⁾ 자원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경제제재로 대부분이 미개발된 상태임.
- 원유는 확인매장량이 약 34억 배럴로 베트남의 44억 배럴보다도 적은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나, 천연가스는 확인매장량이 세계 전체의 약 0.2%인 12조cf에 이르고 있으며, 아직 미탐사 구간이 많아 에너지 개발이 활발한 상태임.

<표 3> 미얀마 주요 자원 보유 현황

구분	단위	매장량	비고
철광석	억톤	3	0.38%(세계 비중)
석탄	억톤	2	-
니켈	백만톤	40	Nickel ore 기준
동	백만톤	21	Copper ore 기준
아연	백만톤	14	Lead ore 기준
텅스텐	천톤	15	0.8%(세계 비중)

자료: 지식경제부, 제5차 한-미얀마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2011.12.7

15) 유연탄, 우라늄, 철광, 동, 아연, 니켈 등



- 광물자원으로는 석탄, 우라늄, 철광석 및 철강, 니켈, 납-아연, 동 등이 미얀마 전역에 산재하고 있으나 대부분 미개발 상태임. 대부분의 광산이 40~50년전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시설교체 및 신기술 도입시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개방개혁정책 추진으로 인프라 개발 수요 급증

- 미얀마는 오랜 경제 제재로 도로, 항만, 철도, 통신, 전력 등의 인프라산업이 크게 낙후되어 있는 실정임. 미얀마 정부는 경제발전의 핵심인 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해 고속도로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항만, 철도, 발전소 등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투자재원 부족으로 미얀마의 인프라 구축은 그동안 중국의 경제 원조 자금에 대부분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었음. 최근 미얀마의 정치 상황이 개선되면서 동남아시아의 마지막 불모지인 미얀마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선진국들의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

□ 중국 및 베트남의 대체투자지역 역할 기대

- 미얀마는 중국이 경제개방 정책을 실시하기 이전에 미국 및 유럽으로 수출하는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활성화되어 있었으나, 1988년 군부 쿠데타 이후 미국 등의 강력한 경제제재 조치로 수출산업이 몰락하였음.
 - 그러나 미얀마는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이 활성화되었던 경험과 함께 5,000만 명에 이르는 인구, 아세안 여타 국가에 비해 크게 저렴한 인건비¹⁶⁾, 과거 영국 식민지 경험으로 인해 영어 사용 가능 인구가 비교적 풍부한 점 등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음.
- 특히 중국 및 베트남 등에 진출한 우리기업들 중 인건비 비중이 중요한 노동집약적 산업(단순 조립 등)의 경우 최근 중국 및 베트남에서의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한계기업들의 이전 대상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16) 초급노동자 기준 미얀마는 70달러에 불과한 반면, 중국은 300~400달러, 베트남은 100~150달러 수준임.



□ 지정학적 중요성

- 미얀마는 인도 및 중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경제적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음.
 - 미얀마는 미국의 안보벨트(태국-인도)의 가장 취약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미얀마가 친미국가가 될 경우 중국의 남진을 견제할 수 있는 미국의 안보벨트를 완성할 수 있음.¹⁷⁾
- 한편 미얀마는 인구 대국으로 거대 소비시장으로 등장한 인도 및 중국 그리고 아세안에서 비교적 선행적 경제발전을 이룬 태국과 인접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소비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 미얀마는 중국 - 동남아 - 인도를 연결하는 30억 인구의 거점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도 큰 편임.

2. 한-미얀마 경제협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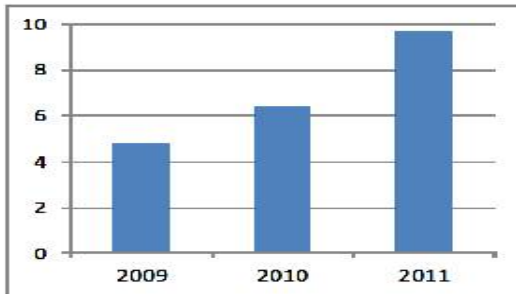
□ 최근 교역 규모 및 해외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규모는 미미

- 서방세계의 미얀마 경제 제재가 시행 이후 한국과 미얀마간의 교역 및 해외투자 등의 경제협력 관계는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최근 미얀마의 개혁개방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2011년 기준 양국간 교역규모는 9.7억 달러(한국 기준 수출 6.7억 달러, 수입 3억 달러)에 불과하며, 한국의 투자 규모는 2011년말 투자 잔액 기준 10.7억 달러이나, (주)대우인터내셔널의 천연가스 투자 비중이 대부분임.
 - 미얀마 투자기업청(DICA)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투자는 2012년 3월말 승인기준 49건 29억 달러로 전체 투자국중 제 4위를 기록하고 있음.

17) 장준영, 미얀마의 개혁개방: 원인과 전망, JPI정책포럼 2012-01, 제주평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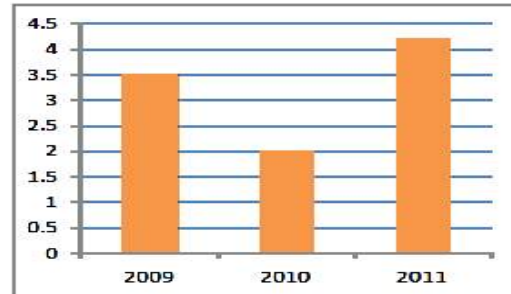


<그림 1> 한-미얀마 교역규모 추이(억 달러)



자료 : 무역협회

<그림 2> 대미얀마 해외투자 추이(억 달러)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인프라 개발을 위한 EDCF 지원 추진중

- 인프라 개발을 위한 유상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은 2005년 이후 중단되었으며, 무상자금은 교육 및 개발조사 부문을 중심으로 소규모 지원에 그치고 있었음.
- 1992년 이후 대미얀마 EDCF 지원은 통신, 에너지, 공공행정, 교통 등 경제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6개 사업, 8,470만 달러를 지원하였음.
- 무상자금은 1991~2009년 기간 중 연수생 초청, 개발조사, 전문인력교육 등을 중심으로 총 2,790만 달러를 지원하였음.
- 최근의 미얀마 개혁개방 정책 추진으로 한국 정부도 2011년 11월 대미얀마 EDCF 지원을 재개하기로 발표하였으며, 현재 미얀마에서 제안한 11개 사업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임.

3. 협력 확대 방안

□ 에너지 및 자원개발 추진

- 한국은 미얀마 A1 및 A3 해상광구 개발에 대우인터내셔널 및 한국가스공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대규모 가스전 발견에 성공하였으며, 이는 한-미얀마간 에너지·자원 분야의 대표적 성과 사업으로 평가됨.



<표 4> 대우인터내셔널 미얀마 천연가스 참여현황

광구	참여자	매장량	비고
A-1	대우(60%), ONGC Videsh(20%), GAIL(10%), 한국가스공사(10%)	3.3~5.6 Tcf	Shwe, Shwe Phyu
A-3		1.5~3.0 Tcf	Myu
AD-7	대우(100%)	2D 탐사증	

자료 : KOTRA, 자원개발진출가이드, 미얀마, 2008.

- 대우인터내셔널 및 한국가스공사는 미얀마 A-1, A-3, AD-7 등의 광구에서 4.5tcf 에 이르는 대규모 가스전 발견에 성공하였으며, 2013년 5월에 일산 5억 cf 상업생산 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대우인터내셔널 사업을 제외하면 우리기업의 미얀마 에너지 및 광물 사업에의 투자 진출은 거의 없는 상황임.
- 에너지 및 광물 개발사업은 대규모 자금의 투입과 탐사에 성공한 이후 생산물 의 안정적 공급 보장에 대한 리스크가 큰 상황인데 그동안은 미얀마의 정치적 불안으로 동 부문에 대한 투자 진출이 어려웠음.
- 미얀마 정부는 자국 경제개발 자원 조달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활 용할 계획으로 최근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 개정이 완료되면 미얀 마의 투자 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미얀마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임.

□ 인프라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

- 미얀마는 열악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 더웨이(Dawei) 경제특별구역 및 심 해항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인 미얀마와 경제 중심지인 양곤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등의 도로 인프라 확충도 추진하고 있음.
- 인프라 개발 초기에는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ODA가 주요 투자 재원이 될 것이므로 우리나라도 유상차관인 EDCF를 적극 활용하여 미얀마 인 프라 구축 사업에 우리기업의 진출이 확대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노동집약적 부문을 중심으로 해외투자 확대

- 미얀마는 풍부한 양질의 저임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미얀마가 본격적으로 개방을 하기 이전까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 대표 업종으로는 의류, 봉제, 신발, 가발, 단순 조립 전자제품, 가방 등이 있으며, 아직까지는 미국 및 EU 등의 경제제재 지역으로는 수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나, 향후 미얀마 경제제재 해제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함.
 - 봉제업의 경우에는 이미 다수의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있어 향후 추가적인 법인 설립 및 투자 진출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이나, 당분간은 전력 부족과 과실 송금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미얀마에 대한 서방 세계의 경제제재가 완화될 경우 노동집약적 산업에 투자한 우리기업들은 생산 제품의 디자인, 영업, 무역, 마케팅 등은 한국 내에서 담당하고 생산은 미얀마 현지 공장에서 이루어지며 생산된 제품은 미국 및 EU등으로 수출하는 국가 간 분업형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형 개발경험의 공유를 통한 협력 확대

- 지난 5월 14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미얀마를 전격 방문하여 떼인 세인 대통령과 정상회담¹⁸⁾을 하고 경제통상 협력 강화, 개발경험 공유, 에너지·자원개발 협력, 문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등을 협의함.
- 미얀마 정부는 새마을운동 등의 개발경험에 큰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은 우리의 개발경험에 미얀마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경험 공유사업을 통한 협력 확대를 추진해야 할 것임.

작성 :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선임조사역 손승호 (3779-5703)
 aojai@koreaexim.go.kr

18) 한국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은 1983년 북한의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 이후 29년만에 이루어졌음.